



박·범·훈 소리인연 40년 가을밤 장엄한다

박범훈 교수가 국악과 인연을 맺은지 올해로 40년이 된다. 이에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40년 음악인생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마련했다. 11월 11일 열리는 '소리연'이다. 사진은 지난 5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부처님오신날 기념음악회 '불향'에서의 지휘 모습.

박범훈 교수 소리緣 40주년 기념의 밤
(11월 11일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

제자들 뜻모아 음악회 마련
메나리 · 돈돌날이 등 대표작 연주
한상일-김재영-이용탁 릴레이 지휘
김성녀 김영임 장사익 음성공양
대표작 모은 CD 40장 출판 예정

박범훈 중앙대 부총장(56)에게 따라 붙는 수식어가 많다. 작곡가, 국악 연주인, 불교음악가, 중앙국악관현악단 단장, 아시아 민족악단 대표, 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 단장 겸 예술감독, 국악예고 이사장, 오케스트라 아시아 지휘자 등이다.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올해 초에는 국악전문지 '소리마당'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국악계 인물 1위에 뽑히기도 했다.

박 교수는 불교음악을 비롯해 우리 전통 음악과 인연을 맺은지 올해로 꼭 40년째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박 교수 제자들의 모인인 '범성회(凡聲會)'가 음악회를 마련했다.

11월 11일 오후 6시 반포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리는 '박범훈 소리緣(緣) 40주년 기념의 밤'이 그것이다. 국수호 정재만, 손진책 등 명인들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들과의 인연을 기념하자는 뜻에서 제목을 '소리연'으로 정했다.

"우리 소리가 좋아서요. 그래서 음악을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다보니 이렇게 시간이 늘고도 몰랐네요. 청탁한 작품들을 주로 만드느라 변변하게 개인 발표회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제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해 준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성녀 중앙대 교수(국악대학)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공연

에서는 피리 3중주 '메나리'와 가야금 합주 '돈돌날이', 해금 4중주 '잡이', 중국 악기인 얼후 협주곡 '향',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등 박 교수의 대표작이 연주된다.

특히 이날 공연의 마지막인 '신모듬' 협주곡 연주때에는 한상일 동국대 교수, 김재영 중앙대 교수, 이용탁 국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등 그의 제자 3명이 릴레이로 지휘를 맡아 제자들의 스승 사랑을 토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박 교수의 작품들을 초연했던 국악인 김성녀 교수가 '귀거래' '배 띄워라'를, 김영임씨가 '한 오백년'과 '해주 아리랑'을 부른다. 이외에도 장사익씨는 그의 대표곡인 '짚레끼'와 '티끌같은 세상, 이슬같은 세상'을 음성 공양하며, 김택수씨도 출연해 사물놀이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을 기념해 그의 대표작들을 모은 전집 음반도 신나라 뮤직에서 출판될 예정인데, 그 수가 무려 CD로 40장에 이른다. 1차 출판분 20장은 공연 시기에 맞춰, 나머지 20장은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낼 예정이다. 또한 자서전 <내가 만난 소리, 내가 만든 소리>(경향신문 출판부)도 곧 출간된다.

40여년전 오늘날의 그를 있게 만든 것은 우연히 만난 남사당패였다. 전국을 떠돌며 공연하던 남사당패가 마침 박교수

의 고향인 양평에 들러 그의 집에 잠깐 기숙한 것을 계기로 '우리 소리'와 만났다. 이후 국악예고와 중앙대 음악과, 일본 도쿄 무사시노 음대에서 탄탄한 기초 실력을 쌓았다.

박 교수가 지금까지 작곡한 작품들도 불교음악, 무용곡, 관현악곡, 독주곡, 중주곡, 교성곡, 창곡, 오페라 등에 걸쳐 수백편에 이른다. 박 교수는 이처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다작(多作)을 쏟아내는 작곡가다. 목재배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지어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아내라'는 뜻인 자신의 호 '범성(凡聲)'처럼 말이다. 그중 박 교수가 불교음악에 쏟은 열정은 대단했다.

1990년 이후 국악 교성곡인 '붓다'와 '용성'을 비롯해 '부모은중송' '진감' '불향' 등을 발표하며, 불교음악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의 불교 음악 사랑은 단순히 작곡에만 그치지 않았다. <박범훈 찬불가, 1994> <한국불교음악연구, 2000> 등과 같은 저서와 '중국 불교음악의 한국 전래와 변천에 관한 연구' '불교사상에서 본 판소리 심청가 연구' '진감법어의 음악적 특징에 관한 연구'와 같은 수 편의 불교 음악 관련 논문을 발표하며 불교음악 이론을 체계화 하는 데도 기여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news.com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나요?

蔘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게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고 하여 명문대가 부인들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蔘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정선산삼(長鬚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蔘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변비가 나왔다.
- 만성위염이 나왔다.
- 월색이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왔다.
- 기력이 좋아졌다.
- 전신이 떨려졌다.
- 백혈병이 나왔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몸이 부기가 빠졌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임파선이 나왔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자궁 불룩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봉사하는 마음으로 열가에 드리코자 합니다. (성물 : 시용가 10kg당 40만 원, 20만 원에 드리코자 하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100원 한정)

만삼달인물 만삼생크 10kg 황기 잔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초

1Box(60포) 20만원 | 2Box(120포) 35만원

주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성명 : 심정택 H·P : 011-9242-8292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페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정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공개사)

서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www.15440108.com
☎ 1544-0108

야단법석

사업부문

- 문수사업부 - 불교행사 기획 출연 (봉축행사, 산사음악회) ☎ 050-5544-0108
- 보현사업부 - 불자를 위한 보현상품개발 (사십구재 보현) ☎ 050-5744-0108
- 관음사업부 - 사찰에 맞는 음향연구개발(음향설비, 음향렌탈) ☎ 050-5844-0108
- 지장사업부 - 불교의례를 통한 포교(다비 · 지장성조회) ☎ 050-5944-0108

사원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모집부문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근무처 : 본인 거주지
문의 : 050-5244-0108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기존의 음향 시스템에서 스피커만 하나만 교체 하여도 음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설계에 드립니다.

음향기기 사용 및 관리방법

1. 날마다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아도 고장난다.
2. 랙(RACK)에 보관 하며 한달에 회 이상 청소한다. 음향기기도 애정을 갖는 만큼 성능을 발휘한다.
3. 일정온도가 유지 되는곳에 설치한다. 너무 습거나 너무 건조하면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4. 관리자를 두며 사용 전에 미리 점검한다. 날씨와 직박에 따라 셋팅하여야 한다.
5. 3년 정도 사용하면 소모품을 교체한다. (마이크, 스피커, 마이크선, 연결잭 등)
6. 스피커 및 앰프 추가시 전문가와 상담한다. 저항 및 출력을 계산하지 않고 연결하면 고장의 원인이 된다.
7. 사용 후 볼륨을 다 줄인 후 전원을 차단한다. 그냥 전원을 차단하면 스피커에 무리를 준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